

전남

“여수신항 대체항 북방파제 적합”

여수·광양항 가깝고 수심 깊어 대형선박 접안 가능
목포해안대 용역... 건설비용 2,500억원 3년 후 회수



파제를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제3차 항만기본
계획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여수 시민은 아
무도 없다”며 “100년 전통의 무역항
기능을 잃어가는 정부의 책략이 아니
라면 조속히 박람회 직접시설로 지정
해 북방파제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대체항으로 돌
을 가장 먼저 역설해 온 여수시의회
고효주 의원은 이날 박람회 지원 특
별법에 따라 직접시설로 지정해 북방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행사장 편
입으로 기능이 달라지는 여수 관문항
인 신항을 대체할 항구로 북방파제를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시 등
에 따르면 여수박람회 주무대로 여수
관문항인 신항이 편입됨에 따라 신항
을 대신할 항구로 최근 목포해안대
용역결과 신항 인근의 북방파제가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수 상공회의소 등은
지난달 28일 여수시청에서 ‘여수신항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어 신항 대체
항으로 북방파제 설립 당위성과 시급
성을 강조했다.
이날 목포해안대 박성현 교수는
‘여수신항 발전방향과 대체 접안시설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

방파제가 여수·광양항 입출항 선박
의 정박해역과 가깝고 대형 선박이
탈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 입·출항시 잡무를
수행하는 여수선과 관광객이 접근하
기 좋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교수는 “본산배치를 강행하면
여수항 80억원, 여천항 342억원, 광양
항 6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대체
항만을 조성할 경우 3년후 건설비가
회수된다”며 “100년 역사를 지닌 여
수 신항의 기능을 잇기 위해 신항 위
쪽 북방파제가 2천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체항만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9월부터 북방파제 필요성
을 가장 먼저 역설해 온 여수시의회
고효주 의원은 이날 박람회 지원 특
별법에 따라 직접시설로 지정해 북방



녹색농협, 녹색자전거 기증
농협성공지구(부지장 이영기)
는 지난달 29일 환경오염을 최
소화하는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곡성군 고달면 가정팍스테이 마
을에서 빙기온 곡성농협 조화장과 김봉우 가동마을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30대와 안전헬멧 3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농협성공지구 제공>

포스코 ‘담배 연기 없는 건강기업’

광양시 주관 제1호 금연인증 업체 선정
포스코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인 ㈜
포스코(대표 최병조)이 광양시가 전
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장 금연인증
제’에 동참해 제1호 금연인증 업체로
선정됐다.
최근 포스코 회의실에서 이성을 광
양시장을 비롯해보건소 관계자, 포스
이성을 광양시장은 “건강이 회사의

“내년 양과 줄여 심으세요”

전남 재배면적 7% 늘 듯
위한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주산지 시·
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늘
어나지 않도록 묘상 설치 면적을 조
사, 작정 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
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자율폐기하
도록 하는 등 줄여심기를 적극 유도
키로 했다.
또 농협에서는 수확기 출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가공
및 수출업체에서는 양과증, 음료 등
양과가공물량 확대와 대만 등지에 대
한 수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호행기자 redplane@

경쟁력이며, 미래상상의 원동력”이라
며 “관내에서 금연인증 1호 사업장이
라는 금자탑을 수성한 포스코 전 직원
의 노력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주 상무(광양사업부부장)는
“앞으로 해마다의 자부심에 안주하
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3주기공모, 산업체 이동 금연관
검시 전원 통과해 금연사업장 선구자
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
다”고 다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3월 금연 선포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n947@

천혜의 바다 낚시터 ‘가거도’
휴양·레포츠 복합관광단지 만든다

한반도의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
(可居島)가 휴양·레포츠 활
동이 가능한 새로운 복합기능을
갖춘 섬으로 바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거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
으로 100억여원을 투입해 가거도
를 휴양과 레포츠 기능을 갖춘 복
합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 5월까
지 가거도 관광자원과 마스터플랜
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구상에 들어갔다.
‘가히 살만한 섬’이란 뜻의 이름
을 지닌 가거도는 농어, 참돔 등 어
족자원이 풍부해 천혜의 바다 낚
시터로 각광받고 있으며 흥도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면
가거도는 굵고 힘찬 남성미의 다
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
만5천여명이었으나, 올해는 10월
까지 3만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관
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고성현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경쟁력이 높은 관광자원을 구
준히 확보하면서 최근 섬 관광객
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
이 필요한 곳이다”며 “흥도와 함
께 대표적인 서남권 관광자원으로
보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ck@



신안 ‘증도대교’ 마지막 아치고 거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군 증
도와 사육도를 잇는 증도대교의 마지막 부분 900m 연결
공사가 지난달 30일 완료됐다. 증도대교는 공정률이 현재 83%로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VIP 병실 개방 신종플루 치료 ‘화제’

여수 한려 엑스포병원 10여명 환자 수용·치료
‘신종 인플루엔자 A’(이하 신종
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
운데 여수지역의 한 신종플루 치
료 거점병원이 이례적으로 VIP 병
실을 개방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치
료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7일 거점병원인(원장 정대
관·사진)은 현재 신안 3층 VIP 병
동을 전면개방해 현재 10여 명의
환자를 수용·치료하고 있다.
특히 폐렴증세로 악화된 일부
고위험군 환자와 자택치료가 어
려운 일부 환자들의 경우 타 거점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
예를 먹다가 이곳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엑스포병원 VIP병실 하루 사용
료는 25만원으로 일반 환자가 야
간 신종플루 환자를 수용할 경우
하루 평균 18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병원매출이 10%가량 감소
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반면 신종 플루 환자 1명당 병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H.P 010-4608-3700.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Solar Power Plant) and 부지 금구함 (Land Acquisition). Contact: 062-233-2222, H-P: 010-3616-8698. Lists various land parcel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Jeongsin Jeongsi Jeonghyang). Contact: 062)431-2834, (H.P) 010-6460-2834.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